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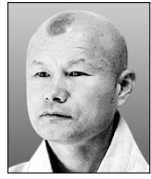
해인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합천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1029일 전도법회 및 해인사 신행회 화합회가 기증한 수익금 등 1300여만원을 불우이웃 돕기로 12월 11일 KBS에 기탁했다.



도서 기증 감사패 받아
서울 도선사 주지 해사 스님은 국회도서관에 경전을 비롯한 도서 1008권을 기증해 12월 12일 국회도서관 배용수 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청진 스님 초청 법회
마산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은 12월 20일 오전 11시30분 정인사 3층 법당에서 청진 스님을 법사로 '티베트불교 스님들의 수행과 청진' 주제 법회를 봉행한다.



'경계허물기' 주제 발표
광주 중심사 주지 진화 스님은 12월 14일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가 마련한 워크숍에서 '경계 허물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백혈병 치료비 모금콘서트 개최
광주 원각사 주지 도재 스님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김경희양의 치료비 모금을 위해 12월 24일 오후 2시 원각사에서 생령나눔사랑 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초구 불교사암연 회장으로
서울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은 12월 18일 열린 서초구 불교사암연합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02)583-1475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받아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12월 14일 서울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06 동국인의 밤'에서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을 받았다.



부산불교실업인회 송년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 김문환 회장은 12월 27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051)818-9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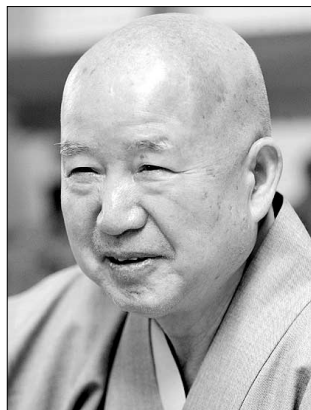
정목 스님 초청 명상법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의무원장은 12월 27일 오후 6시 5층 대강당에서 정목 스님 초청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주제 명상법회를 연다.



보안문화회장 수훈
동국대 임둔회 교수(사학과)는 문화유산보호 서훈자에 선정돼 12월 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안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어린이에 바른 국가관 심기도 ‘백년대계’”

제18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정관 스님



교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교가 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어린이 포교에 있다.’

어릴 때 불교 공부는 평생을 지탱하는 지혜가 되고 성장 후 삶의 방향까지 바꾼다. 100만 명이 가까운 어린이에게 불심을 심어 준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사진)의 포교 원력이 지대한 이유다.

정관 스님의 제18회 포교대상 수상은 어쩌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관 스님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어린 불자들을 키워 국가관, 우주관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해왔다. 종단에서 이렇게 챙겨주니 오히려 고맙다”고 밝혔다.

정관 스님은 “25년 전, 추운 겨울 대각사 지하에서 법회 교재를 등사기로 밀어 우편물 작업을 하던 지교사들을 본 후 충격을 받아 어린이 포교에 눈을 떴다”고 말했다.

‘어린이 포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관 스님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에는 그늘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어린이 지교사들이 있었다.

“어린이법회를 한다는 것은 지교사, 공양주, 아이들의 마음을 두루 살펴가며 해야 하는 일”이라며 스님은 스스로 어린이 포교에 적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털어놨다. 정관 스님은 천진 불의 미소를 지닌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셈이다.

정관 스님의 한결같은 지원과 관심으로 사무실도 없이 영주암 지하방에서 임무를 보았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유급 직원과 사무실을 갖추고 사단법인 동원으로 우뚝 섰다.

스님은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연수회에는 사고 없는 연수회를 지원하는 기도를 하며 항상 행사장을 지켰다”며 “어린이 포교는 불

교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원효종 창종 44주년 종도대회



원효종(총무원장 향운)은 '원효종 종도화합과 종단발전'을 주제로 창종 44주년 종도대회를 12월 15일 대전 그린타워에서 봉행했다. 1000여명이 참석한 대회에서 총무원장 향운 스님은 '원효성사의 화쟁통교, 원융무애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포교를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김병관 장군, 군불총 제5대 회장에 취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병관 장군(육군대장)이 12월 10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열린 법회에서 국군불교총신대회 제5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김 장군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며 군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불자 장병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포교사단 군포교팀 연수



조계종 군포특별교구(주지 일편)는 12월 9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포교사단 군포교팀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는 부주지 계성 스님의 '군불교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수기사 이주환 법사의 '신병교육대 법회 활성화를 위한 슬라이드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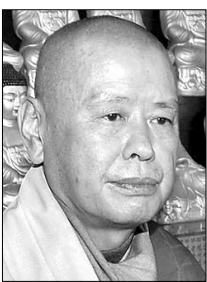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2월 13일 장안중등학교 대강당에서 '제7회 어르신 예술제'를 개최했다. 예술제에서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수강한 80여명의 어르신들이 태극권, 풍물, 댄스스포츠 등을 공연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7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영주세무서, 근일 스님 초청 강연회



영주세무서는 12월 13일 영주 부석사 회주 근일 스님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화합'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근일 스님은 "어려운 납세자들의 실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안옥자 영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원혜 스님 태고종 총부총무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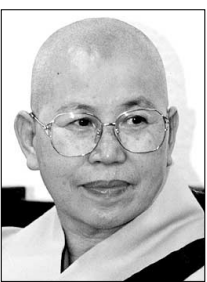


태고종 총부총교구 총무원장에 원혜 스님(총주 정심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태고종 총부총교구총회는 12월 13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교구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혜 스님은 “교구 총무원의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종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총무원에 상주하면서 종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중현중범에 따라 종도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회에서는 또 총무원 부원장에 청원 금불사 주지 광해, 사정원장에 음성 신홍사 주지 운공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정덕 스님 불교상담개발원 3대 원장에



불교상담개발원은 12월 12일 2006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덕 스님(사진)을 3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덕 스님은 1992년 2대 원장에 선출된 뒤 3대 원장까지 연임하게 됐다.

정덕 스님은 “종단이 불교상담심리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관련 법인을 개정하고 공인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등 불교상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교상담개발원은 앞으로 불교상담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전문 불교상담인력 양성을 위해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 불교상담개발원 지부설립을 추진한다.



대원상 상금 500만원으로 군법당에 책 보내

민족사 윤창화 대표

민족사 윤창화 대표(사진)가 대한불교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제4회 대원상 특별상 상금 500만원 전액을 군법당 발전을 위해 기탁했다. 윤 대표는 이 상금을 바탕으로 호국금강사, 화랑호

국사, 호국백일사 등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로부터 추천받은 군법당 50곳에 15권씩 총 750권을 12월 발송했다. 윤창화 대표는 “군법당에 불서를 보내려 고민하던 차에 예상치 않게 큰 상금을 받게 돼 보시하게 됐다”며 기탁 이유를 밝혔다.

출간 1年餘만에 10판 발주! 불교서적 판매 베스트 1위 계속 유지!
“고금 동서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이 죽으면 지은 업을 따라 六道에 轉生한다. 대부분은 악도로 …… 어떻게 살면 우리는 하늘이나 인간 몸 다시 받아 날 것인가? 윤회생사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여기 이 책자는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깊은 三昧에 드는 자재만현 큰스님의 사자후
시대를 초월한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
여섯명의 국내 최고 지식인·학자들이
‘이 진경에는 수십 수백에 이르는 가르침이 현란하고 황홀하게 펼쳐져 있으며 모두 주옥같은 가르침들이다 …’
‘이 책은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증유의 眞經… 불교의 가르침을 극명하게 정리해 준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불교 수행 문화의 신지평 여서다…’ 510쪽 값 15,000원
* 추천 연지사와 부산분원에서만 구입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hyunjisa.or.kr